

빛가람동, 25일 첫 동민의 날 기념행사 연다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만에
초대가수 공연 등 문화행사
빛가람공원 음악분수 '일품'

나주시가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만에 동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초대가수 공연, 마을별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다.

14일 나주 빛가람동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준공 후 2014년 2월 행정복지센터 개소 이래 9년 만에 '동민의 날'을 제정하고 오는 25일 첫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빛가람동은 지난해 '빛가람동 동민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민 투표로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개소일인 '2월24일'을 '동민의 날'로 선정, 정관을 제정했다.

올해 초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중앙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첫 옥외행사를 추진키로 하고 벚꽃 개회 시기인 25일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지역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빛가람동장·주민자치회장·통장협의회장 등 빛가람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장들의 축하 메시지도 영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식전 기념행사로 풍물패,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1부는 기념식 및 효자·효부상, 장수상, 봉사상, 공로패, 감사패 수여 등 시상, 오후 2부는 초대가수 공연, 각 통별로 동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만에 오는 25일 첫 동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나주시 제공

행사장 주변 빛가람동 마을·기관·사회단체별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험부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영배 빛가람동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은 "빛가람동 여러 기관·사회·시민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행추위'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첫 기념행사를 옥외행사로 개최하는 만큼 벚꽃 개회시기인 25일로 선정했으니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준 빛가람동 동민의 날 행추위 자문위원장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만에! 더불어 또 빛가람혁신도시 준공이래 첫 동민의 날이 제정돼 기념행사가 개최됨을 축하드린다"며 "행사가 잘 추진되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호 나주시 빛가람동장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및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이래 동민의 날이 제정돼 첫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행사가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준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9000명이며 이전

기관 및 상인 등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5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빛가람동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생된 나주시 20번째 읍·면·동(행정동)으로 2005년 11월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지 확정 2007년 개발계획 승인 그해 11월 착공됐다. 현재 초등 4곳, 중등 3곳, 고등 2곳,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곳이 있으며 세종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의 빛가람호수공원이 있다. 배매산 전망대와 함께 춤추는 음악분수가 일품이다.

혁신도시=박송엽 기자

농사전기 인상액 50%지원
나주시, 농가 고충 해소

나주시가 농사용 전기 인상에 따른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예산 5억2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0~12월(4/4분기) 전기요금 인상액의 50% 지원에 나섰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농업 생산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농사용 육묘·축산·농작물 재배·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영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종사자로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원기간 동안 요금을 완납해야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10~12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상액(18.1원/kWh)의 50%(9.05원/kWh)를 지원한다.

요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 한전 고객센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전 나주지사를 통해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4월 경 지원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모집
나주시, 3개 과정

나주시가 기업이 원하는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 취업 실무 습득에 중점을 둔 인력 양성 3개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기업, 구직자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한 안전관리자 인력양성(3~7월), 정보관리 실무자양성(5~7월, 2과목) 반을 운영한다.

미취업 청년들의 실무 역량 향상과 자격증 취득, 기업 현장탐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별 15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안전관리자 과정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둔다.

정보관리 과정은 회계·인사 과목 실무자 양성을 통한 관내 기업 취업 매칭이 목표다.

교육 신청은 안전관리자 과정은 오는 26일까지, 정보관리 과정은 5월21일까지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출석률 80% 이상 교육생에게는 간식·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3월3일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에너지실비가능 인력양성사업(6~8월)이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향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귀농·귀촌은 나주로... 농촌살이 참가자 모십니다”

24일까지...문평 명하햇골마을

나주시가 문평 명하햇골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살기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이 농촌마을에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6가구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도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추진 중인 문평명하햇골마을 주민들은 귀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이 마을은 5대째 천연염색 주재료인 '쪽'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 공동체인 ㈜명하햇골을 중심으로 32가구,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쪽 베기, 쪽 염색 체험, 교육·제품 판매, 치유음식·치유



문평 명하햇골마을

농업·치유정원 가꾸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하햇골 마을은 지난해 숙박동 주방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한전KDN,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계약업무협의체 회의

한전KDN이 지난 8일 나주혁신도시 소재 본사 교육관에서 '공공기관 계약업무협의체 회의'를 주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DN이 개최한 '공공기관 계약업무협의체 회의'는 공공기관 공정거래모델을 선도하고 계약업무 현안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공공기관 계약업무협의체 회의는

2021년 12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9곳이 모여 구성했다. 9개 공공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회의에는 참여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23명이 참여했다.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

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각 기관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우선구매 제도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기관별 계약업무의 현안 정보공유

와 소통을 통해 모범거래 개선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호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장의 강의로 진행된 '공정거래협약 이행제도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주요 이슈와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협약제도 확산에 협력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